



-선진 문화·관광 정책사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그리스, 터키)



利川市議會

목 차

I. 개 요

연수목적	2
연수개요	2
연수일정	2
연수참가자 명단	3

II. 연수국가 개요

그리스

○ 정부형태	4
○ 지방행정	5
○ 의 회	5
○ 주요 관광지	5

터키

○ 정부형태	11
○ 지방행정	11
○ 의 회	11
○ 주요 관광지	12

III. 맺음말	21
----------------	----

I

개 요

■ 연수목적

- 고대 문명을 꽃 피운 그리스 및 터기의 주요 유적지 및 관광시설을 견학
- 이천시의 문화·관광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선진 의정을 펼치고자 함

■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12. 6. 21(목) ~ 6. 30(토) 【7박 10일】
- 방문국가 : 2개국(그리스, 터키)
- 연수인원 : 13명 [의원 8명, 직원 5명(의회사무과 4명, 문화관광과 1명)]

■ 연수일정

일 자	시 간	지 역	주요 활동계획	비 고
6. 21(목)	23:50	인천	◦ 인천출발 → 터키 이스탄불공항	TK 091
6. 22(금)	05:45 09:05 09:05~17:00	터키 그리스 아테네	◦ 이스탄불 공항도착 ◦ 이동(이스탄불공항→그리스 아테네공항) ◦ 파르테논 외 유적탐방	차량
6. 23(토)	09:00 21:00~23:10	에기나섬 아테네 터키	◦ 관광시설 견학 ◦ 근대올림픽경기장 및 아테네시청 ◦ 이동(아테네공항 → 이스탄불공항)	TK 1844
6. 24(일)	09:00	이스탄불 앙카라	◦ 돌마바흐체궁전 문화탐방 ◦ 이동(이스탄불 → 앙카라)	차량
6. 25(월)	08:30	앙카라 카바도키아	■ 공식방문 : 한국공원 - 6.25참전기념 위령탑 참배 및 헌화 ■ 공식방문 : 아바노스 도자기마을 - 터키 도자기 견학 및 체험	
6. 26(화)	09:00	카바도키아 파묵갈레	◦ 이동(카바도키아→파묵갈레) 6시간소요 ◦ 야외온천 관광시설물 견학	차량
6. 27(수)	09:00	에페소	◦ 셀수스 도서관 외 유적지 탐방	차량
6. 28(목)	09:00	아이발릭	◦ 트로이 목마 외 유적지 탐방	차량
6. 29(금)	10:00	이스탄불	■ 공식방문 : 터키재향군인회 - 한국戰 참전용사 면담	차량
6. 30(토)	00:45~16:55	이스탄불/인천	◦ 귀국(이스탄불 → 인천)	TK 090

연수참가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이천시의회	의 장	이 광 희	
2	"	부 의 장	김 학 원	
3	"	의 회 운 영 위 원 장	한 영 순	
4	"	자 치 행 정 위 원 장	성 복 용	
5	"	산 업 건 설 위 원 장	김 용 재	
6	"	의 원	김 문 자	
7	"	의 원	김 인 영	
8	"	의 원	임 영 길	
9	의회사무과	의 정 팀 장 (現 교통행정팀장)	윤 희 동	
10	"	의 사 팀 장 (現 창의도시팀장)	김 종 호	
11	"	행 정 7 급	이 민 수	
12	"	기 능 8 급	양 길 호	
13	문화관광과	문 화 팀 장	최 종 악	

II

연수국가 개요

그리스

【 일반 현황 】

- ◆ 수도 : 아테네(Athens/인구의 약 4백만명이 거주)
- ◆ 정치 : 의회주의, UN, NATO, EU 가맹국
- ◆ 인구 : 약 1124만명
- ◆ 면적 : 131,986km² (한반도의 3/5)
- ◆ 주요도시 : 아테네, 테살로니케, 피레우스, 델포이
- ◆ 주요민족 : 희랍인(97%), 터키인 등 기타(3%)
- ◆ 주요언어 : 그리스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 ◆ 종교 : 그리스정교(Greek Orthodox : 98%), 이슬람교(1.3%)



정부형태

1. 대통령

-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의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다.

- 대통령은 총리 지명 및 총리가 제청한 각료 임명권, 군 총사령관으로서의 군사통수권 및 전쟁 선포권, 대통령 선출 불가능시 또는 총리 요청 시 의회해산권, 대법원판사 임명권, 법률공포 및 조약비준권, 의회 동의하의 국민투표 실시권, 총리 동의하의 대국민성명 발표권 등 국가 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보유한다.

2. 지방행정

- 그리스 지방은 13개의 지방(Region)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13개의 Region은 다시 54개의 도(Prefecture)로 구성되고 각 도에는 시[Dimos(Municipality)] 900개와 지역사회[Koinotita(Community)] 133개가 있다.
- Region의 책임자는 중앙정부가 임명하며 중앙정부 정책의 이행과 중앙·지방간 정책조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Prefecture, Municipality(주민수 10,000명 이상), Community(주민수 10,000명 이하)의 장은 4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주요 지역의 경우 Prefecture 3-4개를 총괄하는 확대된 도(Enlarged Prefecture)를 두고 있으며, 아테네시-피레우스시-동서 아티카 등 4개 Prefecture를 총괄하는 Attika 등 3개의 확대된 도가 있다.

3. 의 회

- 단원제로서 4년 임기의 의원 300명으로 구성되며,
- 주요 권한은 입법권, 대통령 선출권, 수상후보자 추천권, 대통령 및 각료 탄핵권, 내각불신임권, 국민투표실시 요청권 등이 있다.
- 의장단은 의장(Demitris Siufas) 및 부의장 5명으로 이루어 짐

■ 주요 관광지

- 파르테논 신전 - 아테네 최고의 유적지
 - 우리시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창의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현재 우리시의 각종 공문표지 등에 유네스코 엠블럼으로 사용

중인 모형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다. 수 천 년 동안 웅장한 자태를 보여 주며 아테네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전쟁과 지혜의 신이자 아테네의 수호신이기도 한 아테네 여신을 모시던 곳이다.

- 세계에서 가장 균형 잡힌 건축물로 불리며 도리아 양식의 건축물 중 최고봉으로 꼽히는 이 신전은 규모 면에서 아크로폴리스에서 최대이며 한때 아테네가 폴리스 동맹국 사이에서 제국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시기 델로스 동맹의 금고로 이용되기도 했다.
- BC 4세기경에 페리클레스가 설계를 하고 조각가 피아디아스가 총 15년이나 걸려 완성한 건축물로 현재 유네스코 유적 1호로 지정되어 있다.
- 역사의 흐름과 함께 이곳은 신전에서 교회로, 그 이후에는 사원으로 사용되다 급기야는 터키인들의 화약고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687년, 베네치아인들이 쏘아 올린 대포로 인해 파괴되기도 하였다.
- 고대 그리스인들의 예술적인 업적의 성과물이자 찬란했던 과거의 한때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전 인류의 귀중한 보물이 같은 인간들에 의해 얼마나 짧은 순간에 파괴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유적지



기념촬영

○ 아고라

- 현재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다음” 홈페이지에서 네티즌들의 치열한 토론과 이야기를 풀어 놓을 수 있도록 만든 “아고라”명칭의 코너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듯하다.
-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있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유적지로, ‘시장’이라는 의미이지만 고대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일뿐 아니라 정치 이야기, 웅변가의 연설 등 갖가지 정보를 얻는 장소였다.
- BC 6세기경부터 건물과 신전이 들어서고 광장 주위엔 노점들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자들이 장을 보러 다녔는데, 그들은 아침 일찍 아고라에 나와 물건도 사고 잡담이나 토론도 했다고 한다.
- 근래에 와서는 유적지 위에 집들이 들어서서 유적이 많이 손상되었으나 1931년부터 민가 300채를 옮기고 미국 고고학회가 발굴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니케 신전

- 스포츠 브랜드로 유명한 나이키란 회사의 이름은 승리의 여신인 니케(Nike)의 이름과 같다. 그리스/로마 신화에 따르면 니케 여

신은 티탄신족이지만 티타노마키아 전쟁 때 어머니인 스틱스를 따라 올림푸스 신족의 편을 들어, 승리로 이끌어 주었다.

- 그녀의 로마식이름은 빅토리아(Victoria)로 이 이름을 쓴 영국 여왕도 있었고, 유명한 폭포 이름도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승리를 뜻하는 '빅토리(Victory)'란 영어단어가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지나 처음 나타나는 불레문을 통과하면 보이는 것이 승리의 여신인 "니케(우리에게는 영어식 발음인 "나이키"로 더 잘 알려져 있다)신전(Temple of Athena Nike)"이다.
-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인들과의 육해전을 비롯한 끊임없이 계속되던 수많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곳에서 빌었다고 한다. 규모도 작고 눈에도 잘 띄지는 않을지 모르나 니케의 신전은 건축 양식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크로폴리스의 수많은 건축물 중에서 처음으로 이오니아식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 여성에 종종 비유되는 이오니아 양식(Ionic Order)은 기둥이 높고 가늘며 세부에 조각장식이 많아 전반적으로 우아하고 경쾌하며 유연한 느낌을 준다. 기원전 5세기에 지어진 이 신전은 17세기 후반, 터키 군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그리스 독립 후 다시 복원되었다.



유적지



유적지

○ 소크라테스 감옥

-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배를 마신 것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수형생활을 했던 곳이다. 법은 준수되어야 하지만, 한편 목숨을 걸고 준법정신을 지켜낸 그의 법사상은 범실증주의에 이어 나치즘 등 전체주의를 잉태하는 모체가 되었다.
- 필로파포스 기념유적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크라테스가 재판관을 받은 후 이곳에 억류되어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어두운 동굴 속을 들여다보니, 양쪽 눈썹은 붙고 매부리코에 고집불통의 老 철학자의 차가운 숨결이 전해져 오는 것 같다.

○ 제1회 근대 올림픽경기장

- 신타그마 광장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이며, 국립정원의 끝, 자피온 남쪽에 있는 말굽 모양의 경기장이다. 이곳은 고대의 판 아테네 대축제가 열렸던 곳으로, BC 331년 판 아테네 대축제의 경기용으로 조성되었다.
- 당초에는 관객석이 없었고 로마 시대에 부호 헤로데스 아티쿠스가 대리석으로 된 관객석을 기증했으나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1895년 제1회 올림픽 개최에 대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그리스의 부호 아베로프가 기부금을 내어 고대경기장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 현재도 각종 육상경기과 행사에 사용되고 있으며, 스타디움 앞 광장에는 경기장 복원에 공이 많았던 아베로프의 상이 서 있다.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 대회가 바로 이곳에서 개최되었으며, 현재 이 올림픽 경기장은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 국회의사당

- 근대 그리스의 초대 왕 오토의 왕궁이었던 건물로 19세기 新고전주의 건축물이다. 국회의사당 앞에는 무명용사의 비가 있고, 그

앞쪽으로 신타그마 광장이 있다. 그리스의 국회의사당은 민주주의 발상의 상징물로 민주주의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democratos(국민의 지배)에서 나왔듯이 그리스에서 기원하였다.

-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 발전한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였다. 모든 시민들이 입법위원이 되어 직접 참여하였고 여성은 선거권이 없었다. 물론, 고대사회의 민주제도에서도 평등원칙이 존중되기는 하였으나 보편성에 입각한 만인의 평등사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 그리고 BC 2세기 중엽에는 과두 독재 국가인 로마에 그리스가 정복당함으로써 시들어가던 민주주의는 그나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현재 그리스의 국회 의사당 건물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발상지로서의 상징성을 갖추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나씩 완성해가고 있는 우리 의회연수단체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국회의사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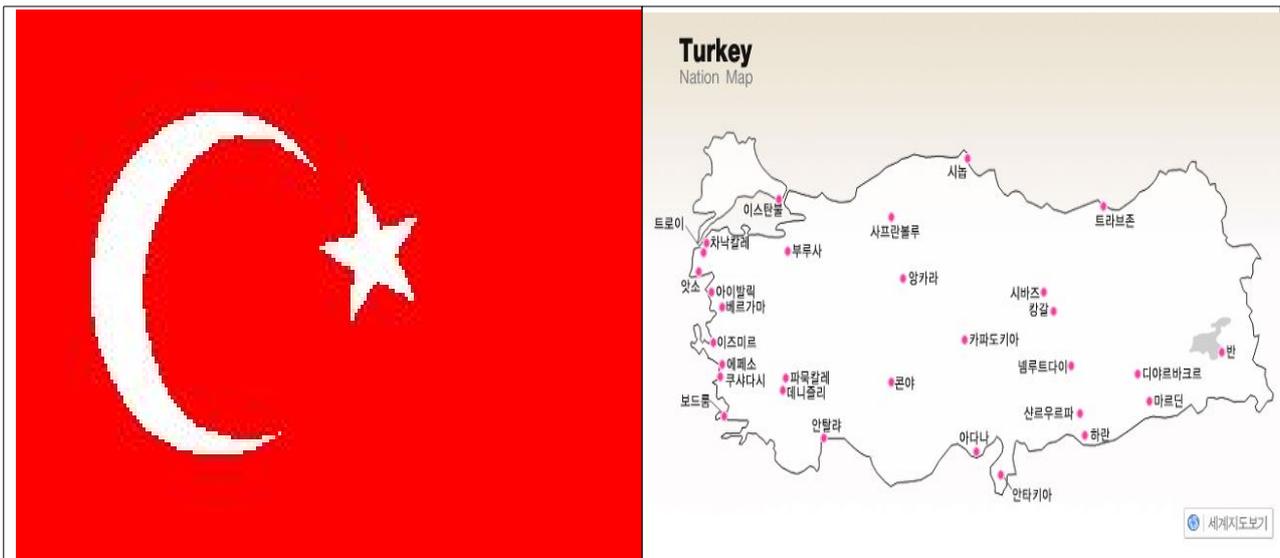


기념촬영

터 키

【 일반 현황 】

- ◆ 수도 : 앙카라(Ankara, 260만명)
- ◆ 인구 : 약 6천 785만명
- ◆ 면적 : 779,452km² (한반도의 3.5배)
- ◆ 주요도시: 이스탄불(Istanbul),이즈밀(Izmir),콘야(Konya)
- ◆ 주요민족: 터어키(90%), 쿠르드 및 아랍(10%)
- ◆ 주요언어: 터어키(90%), 쿠르드어 및 아랍어(10%)
- ◆ 종교: 전국민의 98%가 이슬람교도(수니파)



■ 정부형태

1. 대통령

- 대통령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총리는 국회의원 중 대통령이 임명(통상 다수당 당수를 임명)한 후 국회의 신임투표를 받는다. 총리가 모든 행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국회에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터키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내각책임제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대통령이 직선제로 선출되고, 국회 연설권, 국회 소집권, 법령 공포권 및 법령 재심의 요구권,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회부권, 각료회의와 국가 안보회의 주재, 고위관리 임명 최종 승인권 등을 갖고 있어 단순한 상징적 존재 이상의 정치적 역할과 비중을 갖고 있으며, 터키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요소가 가미된 내각책임제라 볼 수 있다.

2. 지방행정

- 터키 행정구역은 81개 주(Province), 695개 군(District), 35,855개 면(Sub-District)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지사와 군수 및 면장은 내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며, 터키의 지방행정 체제는 프랑스의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지만, 정당 추천제는 없다.
- 각 주에는 주지사를 장으로 하는 주 의회(Provincial Council)가 있으며, 인구 2천 명 이상을 단위로 구성되는 시(Municipality)는 전국적으로 1,984개가 있고, 각 시에는 민선 시장과 시의회가 있다.

3. 의 회

- 국회는 단원제로서 550명의 직선의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 국회는 입법 기능 외에 대통령 선출권, 정부예산 심의권, 조약 비준권, 국정조사권, 전쟁선포권, 내각불신임권 등을 가지며, 터키 군대의 해외파병, 외국 군대의 터키 주둔 등에 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내각을 견제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주요 관광지

○ 보스포러스 해협 (BOSPHORUS STRAITS)

- 유럽과 아시아를 경계하는 해협으로써 흑해와 마르마라해를 연결하고 있다. 길이가 약 30km, 넓은 곳의 폭이

3500m, 좁은 곳이 700m로, 물 흐름이 세차서 여기저기에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

- 양측 해안에는 고대 유적지, 그림같이 아름다운 전통적인 터키 마을, 울창한 숲 등이 곳곳에 있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음식점, 찻집, 별장 등이 있다.
- 고대, 중세만 해도 지중해와 흑해간의 거의 모든 상거래는 이 해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무역에 있어 보스포러스 해협의 중요성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 매년 38,000여척의 배들이 이곳을 통과하고 있다.



해협 전경

○ 돌마바흐체 궁전

- 가득 찬 정원이란 뜻의 돌마바흐체 궁전은 해변을 흠뻑으로 메우고 세운 곳이다. 50만 금화, 즉 현재 돈 5억불에 맞먹는 기금으로 건립된 이 궁은 1856년 완공되었는데, 궁의 내부 장식과 방들을 꾸미기 위해 총 14톤의 금과 40톤의 은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 3층의 대칭구조로 지어진 궁의 내부에는 285개의 방과 43개의 홀, 280개의 화병, 156개의 다양한 시계, 4톤과 2톤 중량의 상들리에를 포함한 36개의 상들리에, 58개의 크리스탈 촛대, 560점 이상의 그림, 손으로 직접 짠 대형 카펫 등이 전시되어 있다.

- 오스만 제국의 세력이 급격히 악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를 만회하고자 서구화를 추진하고 국력 쇠신을 도모하던 압두메짓 1세가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을 모방해 초호화판으로 이 왕궁을 건립하였으나, 결국 막대한 건축비 지출로 왕실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어 오스만 제국의 멸망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 지하 저수지

- 연수단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유적지 중 하나로서 인간 사회에서 물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가를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이스탄불은 외세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했었기 때문에 언제나 충분한 물의 공급이 필요했던 도시였다. 따라서 비잔틴 제국 시대에 지하 저수지를 많이 건축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저수지가 성 소피아 성당 맞은편에 위치한 지하궁전(Yerebatan Sarayi)이다.
- 이 건물은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시대에 건설되었으며 336개의 기둥 중 거의 모두가 비잔틴 코린트식의 기둥머리를 가지고 있다. 저수지 전체의 크기는 70m 폭에 길이는 140m 이다. 1985년에서 1988년 사이, 이스탄불시는 이 저수지를 개축하여 새로 단장하였다.
- 기둥들 사이에는 나무로 도보 길을 만들었고, 조명과 음향 효과를 써서 관광객을 위한 명소로 만들었다. 석고위의 수심 측정기의 눈금이 기둥머리에 까지 다다른 것을 보면 당시 이 저수지에 물이 얼마나 가득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
- 물속의 잉어 조각은 장식적 효과를 주는 것인데 이는 오염으로부터 물을 보존한다는 의미를 띄고 있다고 한다. 방문단이 찾을 당시 물속에는 많은 수의 잉어들이 유유히 수영을 하고 있었다.



지하저수지 내부

○ 이스탄불의 상징(성 소피아 박물관)

- 성 소피아 성당은 현재 성 소피아 박물관이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은 최초에는 성당이였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기 전까지 규모면에서도 세계 최대를 자랑하던 성 소피아 성당은 오늘날까지도 비잔틴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 비잔틴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교를 처음으로 공인하고 이곳에 거주하기로 정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새로운 도시의 큰 사원'으로 325년 창건했던 성 소피아 성당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명에 따라 532~537년에 다시 크게 개축되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성 소피아 사원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 이후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정복당한 이곳은 회교사원, 즉 모스크로 그 용도가 바뀌면서 성당을 둘러싸는 미나레트가 세워지고, 성당안벽은 회칠로 덮이고 그 위에 이슬람교 코란의 금문자와 문양들로 채워졌다.
- 1934년 성 소피아 박물관이란 이름으로 정식 명칭을 바꾸면서 복원작업이 진행되어 두꺼운 회칠이 벗겨지면서 성모마리아를 비롯한 비잔틴시대의 화려한 흔적들이 드러났다. 성 소피아 성당의 중앙에 서면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공존하는 기묘한 장면이 연출되는 역사적인 장소임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 셀수스 도서관

- 에페소 유적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 중 하나로 손꼽히는 셀수스 도서관은 에페소 유적가운데 전면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에는 얼마나 화려했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여러 차례 많이 훼손되었으나 최근에 재건되었고 높은 초석 위에 세워진 이 건축물은 넓은 계단을 통해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다.
- 이 도서관에는 세 개의 문이 있는데 각각의 상단은 지혜, 운명, 지식을 상징하는 정결한 여성상들로 장식되어 있다. 셀수스의 무덤은 중앙 적소 아래 지하에 위치해있다.
- 도서관 터에 남겨져 있는 비문에 의하면 도서관을 지으라고 명한 C.Aquila는 이 건축물이 완성하기 전에 숨을 거두었고 이에 그의 후계자에 의해 건축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 Aquila는 도서관에 소장될 서적 구입비로 2만5천 디나르를 남겨 두었다고 알려져 있다. 더불어 에페소는 사도바울이 서기 53년부터 이곳에서 2년 간 전도활동을 하며 강론을 펼쳤다는 사실로도 유명하다. 따라서 에페소는 이곳에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져 부흥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성지 순례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념촬영



자료 메모

○ **6.25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참전비 참배**

- 이번 연수일정을 계획할 때 가장 고려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한국전쟁 발발(勃發) 제62주년이 되는 2012년 6월 25일 당일에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 있는 “6. 25참전 용사 위령탑” 참배였다. 6월 25일 이른 아침, 우리를 돕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터키군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헌화할 수 있었다.
- 1950년 북한군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사무총장으로부터 한국을 도와줄 군대의 파견을 요청 받은 터키는 즉각 보병1개 연대와 포병1개 대대 그리고 지원부대로 편성된1개여단5,455명의 군대를 한국에 파병했다.
- 1953년 휴전 될 때까지 모두14,936명의 터키군인이 한국전에 참전하였으며, 그중에 전사725명, 부상2,147명, 실종175명 등 3천여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현재 한국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통계자료이며, 본 글 후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언급됨) 16개 참전국 중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나라이며 미국과 영국다음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기념촬영



위령탑 헌화

○ **카파도키아 도자기마을 아바노스 시찰**

- 원색의 화려한 유럽풍 도자기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터키 중부에 위치한 카파도키아의 도자기마을 아바노스를 공식 방문하였다. 그 중 가장 오랜 도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베네샤(Venessa)을

- 찾아 터기 도자기와 이천 도자기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작업실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도예가들이 각자의 작품 완성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젊은 작가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전시실의 특징 중 하나가 마스터의 작품만을 전시하는 전문가 전시실이 있고, 실습생들이 만든 작품만을 전시하는 곳 또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곳으로 분류하여 작가의 개인별 수준에 따라 도자기의 형태와 색이 어떻게 다르게 빚어지는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 한편, 작업실 한 곳에는 도예가들이 발 물레를 이용하여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방문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았으며, 우리 연수단은 현지 도예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 발 물레를 이용한 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도자 만들기 체험



방문 기념품 교환

○ 한국戰 참전 용사 협회 방문

- 이스탄불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유서 깊은 공원으로 꼽히는 “굴하네 공원”내에 있는 한국戰 참전 용사 협회는 약 100평 규모의 독립 건물로 되어 있었으며, 회원들의 사무실과 한국전쟁 당시 터키군의 활약을 담은 각종 사진들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실로 구분되어 있었다.
- 한국전 참전 용사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환영식 등 환담을 통하여 참전 용사들의 깊고 변함없는 한국 사

량을 느낄 수 있었다.

- 현재 터키에는 약 5천여 명의 참전 용사들이 생존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터키군의 한국전 희생자를 약 470명으로 발표해 오고 있지만, 터키 한국전참전용사협회 Ahmet Kendigel 회장의 말에 따르면 한국전 터키군의 희생자는 전사·실종자 등을 모두 합쳐 약 1천명이라고 한다.
- 역사에는 가정(假定)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전쟁 당시 터키를 비롯한 우방국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운명의 시계는 어떻게 멈추었을까 가정해 본다. 다시 한 번 터키군의 희생에 숙여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 본다.



기념촬영



참전 협회장 환영사

《귀국 후 이광희 의장의 감사 편지》

존경하는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이천시의회 의장 이광희 입니다.

지난 6월 25일 한국전 참전용사협회를 방문한 우리 일행을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형제의 우정으로 저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62년 전!

공산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명운이 칼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롭고 절박할 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 여러분께서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한국행을 선택하였고, 처참한 전쟁의 포연 속에서 용감히 싸웠고 맡은 임무를 완수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값진 희생과 용기 그리고 터키 정부의 변치 않는 우정과 관심 속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였습니다.

찬란한 문명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터키와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에도 변치 않는 혈맹의 우정을 이어가리라 믿으며, 한국을 방문하실 경우 우리 이천시의회를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7. 5
대한민국 이천시의회 의장 이광희

ICHEON CITY COUNCIL

July 5, 2012

Dear members of the Turkish Veteran's Association of the Korean War,
I am Lee Gwang-hee, chairman of Icheon City Council.

All of you including Mr. chairperson cordially welcomed the delegation of Icheon city when we visited the Turkish Veteran's Association in June 25.
I would like to extend my appreciation to you for heartfelt welcome we received once again.

62 years from now, you have decided to enter the Korean war without any hesitation to defend our country, Korea and bravely fought at the battlefield dense with gun smoke.

Owing to your valuable sacrifice, brave and everlasting friendship of Turkish government, Korea now had emerged as an economic power and accomplished a free democracy.

I believe that both Turkey and Korea cherishing the history of brilliant culture, will continually keep the friendship as a blood brotherhood.
And I would like to ask you to visit Icheon City Council when visiting to Korea in the future.

I would like to give my appreciation to your noble spirit will of the president and member again, and I wish you good health and happiness for the future.

Thank you very much.
Yours sincerely,

Lee Gwang-hee
Chairman of Icheon City Council

-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실시해 온 이천시의회에서는 연초 “2012년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하면서 크게 2가지의 연수 목표를 검토하였다. 첫째 오랜 세월동안 의회민주주의를 다져 온 국가들의 의회를 방문하여 “선진 의정사례의 자료수집 및 연구”였고, 두 번째는 문화·관광 도시를 지향하며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는 이천시의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선진 문화·관광 국가의 관광 인프라 등을 연수하는 계획이었는데 최종 두 번째 안으로 결정되었다.
- 최근 관광 도시로 크게 각광받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와 터키 이스탄불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유적지 등을 탐방하면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찬란한 유물과 유적지들의 높은 인류적 가치만큼이나 두 국가는 이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또 많은 경제적 수입을 얻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아테네 시내 곳곳에서 빈 공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노후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유물 등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된 곳이고, 해당 사유지는 곧바로 국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지만 시민들은 크게 불평하지 않는다고 한다.
- 이천시는 2010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세계 속의 문화 창의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그리스 및 터키 두 국가의 문화·관광 선진 사례들을 시정에 접목하여 더 나은 문화·관광 정책이 펼쳐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